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믿음과 충성은 순교의 상황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프는 86세에 순교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를 회유하려 하자 폴리카프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소.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소?”

종이 신실함을 잃으면 주인인 양 살게 됩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회계하러 올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5:31). 때를 알 수 없다고 신실함과 믿음을 잃으면 본분도 사명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며 신실한 삶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굳거나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2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분복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엄청난 달란트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편, 참된 충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마음과 의도까지 헤아리는 자가 제대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맺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삼상 15:22).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까?

- ① 신실한 청지기입니까? 혹시 주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②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